

野 “최악” vs 與 “천연 다이아몬드”

김연철 청문회 ‘극과 극’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을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당 역시 김 후보자의 막말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체로 능력과 전문성을 부각시키며 방어에 힘썼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 사건을 ‘통과의례’라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었다.

과거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학 교수 시절 SNS에 썼지만 공인으로서 자격은 정말 없다.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글(막말)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설을 그칠 줄 몰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역대 최악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과연 저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통일부가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도 지금은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과연 진심성 있는 해명이나 현재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천안함 폭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태도를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피해했다.

여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정책 질의에 치중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언론에 김연철 교수의 칼럼이 나오면 열심히 정독했고 남북관계,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지문을 구한 적도 많이 있다”며 “후보자는 이념에 갇혀 있지 않고 현실과 현장을 중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한반도문제 해결의 해법을 다각적으로 끊임없이 모색하는 실용주의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보통 인사검증이나 청문회를 할 때 세금탈루, 병역면탈, 성범죄,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의 기준이 있는데 김연철 후보 정문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7개 중에 어디 하나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였다”며 “전문성에서도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또 있을까. 통일부 장관으로 천연 다이아몬드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같이 몇몇 언급과 주장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께서 지난날 대통령이나 여러 분들과 관련하여 아픈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통일부 장관이 되시면 딱 한가지 일만 제대로 해하시면 그간의 과거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SNS상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깊이 반성한다”, “깊이 유념하겠다” 등 시과나 ‘유감’, ‘반성’이라는 표현을 수십차례 언급할 만큼 낮은 자세로 임했다.

김 후보자는 강석호 의원으로부터 “북한비핵화를 위한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갖추야 할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남북 경험만 설과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저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그냥 시원하게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냐”고 묻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연철 후보, “사과”·“반성”·“유감” 반복

“막말·욕설로 자질 불합격...남남갈등 대상”

“한반도문제 해결 다각적 모색 실용주의자”

김연철 후보, “사과”·“반성”·“유감” 반복

표가 천안함 폭침 5주기 때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를 위한 것을 두고 “군복 입고 쇼”라고 폄하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썰매 버린 꼴”, 추미애 전 대표를 향해 “감염된 썰매”라고 비난한 바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너무나도 저질 발언, 막말, 욕설이고 지식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은 이미 불합격으로 검증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기에 턱 없이 자질이 부족하다. 세상을 향해서 내뿜는 인사들이 전 지식인이나 대학교수라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이다. 너무나도 거칠고 품위가 없고 분노에 차있고 거의 욕설에 가까워 차마 이 자리에서 제 욕설로 옮겨가 민망할 정도의 표현들로 일관해 있다”고 비판했다.

다.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본인은 남남갈등의 대상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저서에서 박왕자씨 사건을 기술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형장에 있었던 사람 같이 북한군 입장을 대변하느냐”며 “이런 분이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나 국민들이 동의하겠나. 이것도 부족해서 고 박왕자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고 발언하고 글 쓴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된 다음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과거 발언이나 입장을 번복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편향이 너무 도를 넘고 있다. 또 그렇게 확실한 주장을 해놓

박지원 “北 연락소 복귀 환영...文, 북미 대화 노력해야”

“물러 특검 끝...트럼프, 北비핵화 매진할 길 트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측의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복귀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든 설사 진쟁을 하더라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특별한 합의는 없었지만 남북 간 대화는 계속 되어야 하고 북미 간 대화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

계에서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때 북측이 일연반구 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개성연락사무소에 다시 복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 취소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지만 좋은 결정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 거듭 환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물러 특검의 결과가 결국 한 방 없이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서 상당한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대

북 즉 북한의 비핵화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 트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에 더욱 몰입해 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김일성, 김정일 유언통지에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하지 않다”며 “푸틴과의 정상회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재개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매진하는 길을 찾도록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영표, 김학의·드루킹 특검 연계 한국당 주장에 “물타기”

“이런 상황 막기 위해서도 공수처 반드시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 차관 특검과 드루킹 재특검 연계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학의 26일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법무



한-벨기에 확대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필립 벨기에 국왕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벨기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특검을 받을 테니 드루킹 재특검을 하지는 것은 정말 물타기를 해도 너무 심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도 더이상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학의와 그 뒷선 비호세력이 아닌 국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한국당이 제 1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권고가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처리도 거론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자가 천안함 노획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군가의 비호로 6년째 진상 규명조차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학의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한다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임세원법, 국민체육진흥법, 단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민생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 협조도 요구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정쟁과 무관한 입법”이라며 “여야가 싸우고 다투더라도 민생 경제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